"올해 안 동해·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천명한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보다 한층 진전된 합의지만, 실질적인 현대화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사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선언의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겨레' 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평양공동선언' 을 발표하고 "남과 북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동·서해선은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안에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을 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은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탓에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쪽 미연결 구간 공사만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제지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선언문이 말하는 착공식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남측 구간이 아닌 북한 철도,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 이라며 "착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경의선 철도의 경우 2004년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 시설이 노후화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은 경의선 도로뿐이고,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도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남측 구간에 대한 공사도 필요하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강릉~제진(104.6㎞) 구간이 미연결 상태로 선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경의선 고속도로 문산~개성(11.8㎞) 구간 역시 공사가 필요하다.

남측 구간 공사의 경우 예산만 책정되면 사업 진행은 무리가 없지만, 북측 구간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탓에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한다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크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남한 입장에서 철도와 도로는 즉각적인 경제효과가 떨어짐에도 올해 안 착공식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 같다." 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비핵화 조처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아보카도에 반려동물 간식 명절 선물에 새 바람

명절 선물세트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명절 선물의 오랜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 한층 다채로워진 추석 선물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 확산 등으로 추석 선물 선호도도 바뀌는 추세다. 지난 14일 유진그룹이 임직원 1,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명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하지 않는 명절 선물 1위로 생활용품(27.3%)이 꼽혔다. 음료세트(17.7%)와 가공식품(17.6 %)도 각각 2·3위에 올랐다. 생필품과 기호품이 인기 명절 선물이었던 1980~1990년대와 확연히 달라진 모양새다.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유통업계는 명절 선물 상품 다양화에 나섰다. 특히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간편식 선물세트가 크게 늘었다. 가정 간편식 제품으로만 구성된 선물 세트가 등장하고, 1인용 육류·주류 등 상품이 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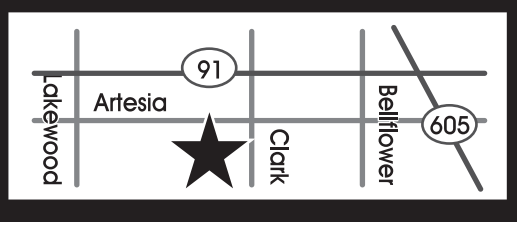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한우 가격과 중량을 세분화하는 등 올해 소포장 추석 선물 세트를 25% 이상 확대했다." 며 "선물을 받는 고객들이 1인 가구인 경우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펫팸족' (Pet+Family)의 마음을 잡기 위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추석 선물 세트를 출시했다. 반려동물 선물 세트는 음식, 장난감, 외출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가 포함된 선물 세트도 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대학생은 반려동물 선물 세트에 대해 "흔한 추석 선물보다 훨씬 실용성이 높다." 며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라고 전했다.

익숙한 과일 선물세트 대신 최근 건강 식재료로 각광받는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선물 세트도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수입 과일의 거래액이 급증했다. 추석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아보카도와 블루베리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도 다양해진 명절 선물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주부는 "매년 명절 연휴 전 거래처, 직원에게 참치캔 등 일반적인 선물세트를 돌렸는데, 선물하면서도 '겨우 구색만 갖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 "올해는 색다른 선물 세트가 많아 선물할 기분이 날 것 같다." 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정확한 프레임 교정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Towing & Rent Car 알선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